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기독교 영성의 특징

성경: 시편 22편 23-28절

Tag:

23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24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25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갓으리이다

26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27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28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시 22:23-28)

모든 인간에게는 영성이 있는데, 이 영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 중 핵심적인 성품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의 영성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역시 영혼만 지닐 수 있는 지성, 감성, 정체성이 있다. 이러한 영성을 담을 수 있는 구체적 존재를 우리는 인격체라 부른다. 즉 인격체는 영성을 담고 있고, 영성의 구성 요소로는 지성과 감성과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인격체에는 각각 독특한 가문과 역사와 전통이 서려 있으면서 정교하고 신비로운 생물학적 특성을 지닌 특정한 한 사람의 몸과 결합되어 있다.

결국 사람이란, 각각 다른 가문에서 태어난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어 또 다른 영혼을 출생시키면서 새로운 영혼이 태어난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똑같은 영혼은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서 똑같은 영성이란 있을 수 없다.

사람은 엄밀하게 따진다면 결국 DNA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이 결정된 채 태어나는 셈이지만, 나라와 민족과 가문과 부모의 양육과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그 영성 만큼은 훨씬 다양한 양상을 띠게 마련이다.

서론이 길어졌는데, 지금 인류는 종말을 향해서 기나긴 여행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게 되는데,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오직 선택받은 영혼, 즉 건강한 영성의 소유자만 환영받는다.

27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28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27절 말씀은 결론적이며 예언적인 말씀이다.

-지리적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이다.

-모든 나라와 족속은 영성이 통일된 일련의 무리들을 뜻한다. 나라는 국가요, 족속은 민족이다. 여러족속이 한 나라를 이루기도 하고, 여러나라가 한 족속을 이루기도 할 것이다. 결국 그들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여호와와 모든 나라의 주재라는 표현은 결국 기독교 영성으로 나라가 영적으로 통일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강한 영성을 우리는 ‘기독교 영성’이라 규정할 수 있다. (물론 세상에는 기독교 영성 말고도 수많은 다양한 영성들이 있다.)

오늘은 기독교 영성에 관해 살펴보자.

‘기독교 영성의 특징’이 오늘 설교의 주제다.

기독교 영성 중에서 중요한 몇가지만 살펴보자.

기독교 영성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형성에 있다.

23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형성의 핵심 단어가 경외심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이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다.

-그것은 절대적 영광 앞에서의 두려움이다.

-오직 찬송하며 그 영광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래도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너도 나도 내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 우길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세상에 철수는 많다.)

히브리식 표현으로 따진다면 이렇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오순절의 성령으로 임하신, 신약성경에 기록된, 이단을 제외한 카톨릭과 개신교가 신앙고백하는, 이슬람의 알라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대상이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다.

물론 이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인간의 영성이라 해도 동일 하지는 않다. 다만 한결 같을 뿐이다. 공통적인 특징에서 벗어난다면 아무래도 순전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설명이 복잡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잡하시거나, 여러분이 계시는 것은 아니다. 또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한 가지만 붙들고 이것이 영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설명이 복잡한 것은 정체성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즉, 바로 ‘그 분’, 다른 분이 결코 아닌 ‘바로 그 분’과의 관계형성이 영성의 핵심이란 뜻이다.

순전하신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이 관계 있어야 한다. 서로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모르실 리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잘 알아야 한다는 뜻.)

개인적인 신령한 체험은 다양할 수 있으나, 결국은 끊임없는 지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순전하게 해야 한다.

두 번째 기독교 영성의 중요한 특징은 닮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므로, 다른 어떤 성품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 영성의 핵심이다.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의 성품을 닮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의 영적 DNA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꼬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마귀의 성품이 묻어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마귀의 성품으로 더럽혀져 있을 수 있고, 심하게 형클어져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마귀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식인지 헷갈릴 수도 있다.

심지어 어떤 성품은 습관화 되고 중독되어서 이미 굳어버렸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이미 불구가 되어 기회만 주어진다면 악한 습관이 폭발하고, 최악의 경우 몽유병에라도 걸린 것처럼 의도치 않는 악한 습관이 되어 반복될 수도 있다.

또는 가문의 저주가 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 지역의 풍습이 되어 그것이 나쁜 것인지도 모른채 평생을 지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죄인이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

오직 은혜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만이 나를 온전케 한다.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절뚝거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예를 들면 걸핏하면 화를 내는 성미는 마귀를 향해 쏟아부어야 한다. 마귀를 대적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끊임없는 사랑은 중보기도에 쏟아 부어야 한다. 날마다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세상에 빠진자가 돌아오도록 사랑을 쏟아야 한다.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노력은 성경공부와 기도와 묵상이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다. 두 번째 좋은 방법은 교회봉사와 사회봉사활동이다.

기독교 영성의 특징이 관계인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인은 관계를 중시하는 고 맥락 민족이니만큼, 솔직한 대화에 어려움이 있다. 친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되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한번 틀어지면 소통하기 힘든 사이가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랑의 끈만은 놓지 않는다. 사람마다 마음을 여는 방식은 다르다. 오직 하나님만 그 마음을 여신다. 중보기도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두드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기도도 소통이다. 명령도, 떼쓰는 것도, 주문도, 앵무새도 아니다. 정성을 모아 하나님과 정중하게 말을 건네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하실까?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자.

기독교 영성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관련 구절은 성경에 수두룩하게 많다.) 복이란 기독교 영성의 꽃과 같다. (굳이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 설명한다면, 경외감이 뿌리고, 찬송이 즐기이며, 복이 꽃과 같다.)

25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26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찬송과 서원을 갚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시적 영성이다.

내 입으로 찬송하는 것이 중요하고, 회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고백이다. (그래서 교회마다 찬양대, 찬송을 하는 것임)

찬송은 유희가 아니다.

누가 찬송을 소홀히 하느냐? 교만한 자가 찬송을 소홀히 한다.

이것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영성의 특징이다.

어떻든 기독교 영성의 결론은 복 받는 것이다.

신령한 복과 더불어 물리적인 복을 받는 것이다.

영생도 얻지만,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것이다.

건강의 복과 재물의 복과 자녀의 복과 부동산의 복을 받는 것이다.

당사자가 만약 복을 못 받는다면, 그 자녀가 복을 받고, 만약 그 자녀도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손자가 받는다.

성경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상속법은 최악이다.) 성경은 상속을 복으로 여긴다. 아버지가 흠수저라고 실망하지 말고, 내가 금수저가 되려고 하라.

나부터 복 받고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물려 주려고 생각하라.

누누이 말하지만,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한평생 살아보았자 꿈을 모두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나의 후손들이 누릴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다. 그들은 복을 받았고, 지금도 그 후손들은 복을 받고 있다.

유대인을 뒤이은 기독교인들은 폭발적으로 복을 받았다. 그 복을 한국도 누리고 있다.

기독교 영성의 특징이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길 바란다. 아멘.

